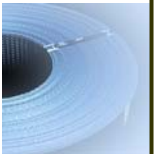


200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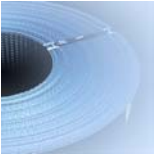
POSRI CEO REPORT

2007 년 국내외 철강산업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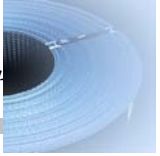
철강연구센터
박현성, 탁승문

Executive Summary



〈2007년 국내외 철강산업 주요 이슈〉

- 2007년 세계 철강산업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쟁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국내 철강산업도 수요증가세의 둔화와 함께 경쟁구조의 다원화가 한층 진전될 전망이다
- 세계 철강산업은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 M&A 열풍 확산, 중국발 통상마찰 격화, 원료 확보경쟁 심화 등의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 철강수요는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공급 측면에서의 변수(중국의 능력 증가 속도와 통합화의 진전 여부 그리고 선진국의 감산 여부 등)가 많아 전체적인 시황은 공급 Side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 M&A 열풍 확산: 그 동안 소수 대형 철강기업 주도에서 Tata Steel과 CSN 등 원료보유국의 중소형 철강사들이 M&A 경쟁에 가세하면서 M&A 시장에 열풍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인수비용 과다에 따른 M&A 리스크 경계 필요성도 본격 제기될 전망이다
 - 중국발 통상마찰 격화: 중국의 철강 순수출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철강산업의 보호주의 경향이 다시 강화되면서 중국발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철강시황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원료 확보경쟁 심화: 새로운 자원민족주의 대두에 따른 자원무기화 경향의 강화로 철강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국내 철강산업은 철강수요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제철의 생산 증가와 중국 등 수입 철강재의 유입 증대 등으로 경쟁구조가 한층 다원화될 것으로 예상됨
 - 철강수요 성장세 둔화: 지난해 4.5% 증가에 비해 둔화된 3.1% 증가가 예상됨
 - 경쟁구조 다원화: 현대제철의 생산 증가(열연)와 함께 중국산 철강재의 유입 증가, 국내 철강사와의 제휴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본 고로사들의 고급강 시장 침투 등으로 경쟁구조가 다원화될 전망이다



목 차

I. 서론	1
II. 세계 철강산업 이슈	1
1. 철강경기 불확실성 증대	1
2. M&A 열풍 확산	3
3. 중국發 통상마찰 격화	4
4. 원료 확보경쟁 심화	6
III. 국내 철강산업 이슈	7
1. 철강수요 성장세 둔화	7
2. 국내 철강시장의 경쟁구조 다원화	9

I. 서론

- 2007년 세계 철강산업은 철강경기의 불확실성 증대, M&A 열풍 확산, 중국발 통상마찰 격화, 원료 확보경쟁 심화 등 경쟁 환경의 불확실성과 다양성이 커지는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우선 철강수요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M&A 시장에도 소수의 대형기업 주도에서 인도와 브라질 등 신흥국의 중소형 철강기업의 가세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 그리고 중국의 순수출 물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중국발 통상마찰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고, 새로운 자원민족주의의 대두로 인한 자원 무기화로 원료확보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다
- 한편 국내 철강산업도 철강수요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중국산 유입 급증 등으로 경쟁구조의 다원화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국내 철강소비 증가율은 지난해의 4.5%에 비해 둔화된 3.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현대제철의 생산량 확대(열연)와 중국 등 수입 철강재의 국내시장 침투 지속으로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II. 세계 철강산업 주요 이슈

1. 철강경기 불확실성 증대

- 2007년 세계 강재수요 증가율은 전년비 5.2%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안정적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세계 강재수요 증가율은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2005년의 5.5%, 2006년의 8.9%에 비해 다소 둔화되겠지만, 중국 및 신흥 철강산업의 고성장세와 철강산업의 대형화에 따른 공급 조절능력 향상 등으로 비

교적 안정적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미국과 EU는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철강재 수요가 전년비 각각 1.3%, 1.5%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철강재 수요 전망, IISI('06.9)>

(단위: 백만 톤, 전년비 증감률, %)

	2005	2006	2007
세계 전체	1,028(5.5%)	1,120(8.9%)	1,179(5.2%)
미 국	107.3(-7.2%)	116.4(8.5%)	114.9(-1.3%)
EU 15국	139.4(-5.4%)	150.0(7.6%)	147.7(-1.5%)
일 본	78.0(1.6%)	78.6(0.8%)	80.8(2.8%)
중 국	327.0(21.1%)	374.0(14.4%)	413.0(10.4%)
인 도	38.1(11.1%)	41.9(10.0%)	45.7(9.1%)

□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의 변수가 많아, 2007년 세계 철강시황은 공급조절 여부, 특히 중국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공급측면에서는 중국의 능력 증강 속도와 Consolidation의 진전 여부, 원료가격의 향방, 선진국의 감산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상존해 있음
- 특히, 중국은 지난 수년간의 대대적인 능력 증강으로 철강재의 Overflow 문제가 조기에 가시화됨으로써 2006년에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함. 따라서 2007년에는 이미 신설 중에 있는 설비와 계획되고 있는 설비증강의 실현 여부에 따라 세계 철강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중국의 공급능력 증가 속도가 둔화되지 않을 경우, 이미 세계 철강생산의 35%를 상회하는 중국의 철강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수출물량 확대가 불가피해 세계 철강경기의 급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2007년 철강수급과 시황>



□ 한편 2007년에는 동아시아의 주도경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미국과 동아시아권 간의 경기 동조화가 깨지는 이른바 De-Coupling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 세계에서 차지하는 아시아의 소비비중은 2005년 46%에서 2006년 52%로 높아졌으며, 특히 2007년에는 중국이 세계 소비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56%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한편 그 동안 세계 철강시장에서는 미국이 선행하면 다른 국가들이 뒤를 잇는 경기의 동조화 현상이 일반적이었으나, 2007년에는 미국과 EU는 부진한 반면, 동아시아 국가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이른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2. M&A 열풍 확산

□ 그 동안 소수기업이 주도했던 철강 M&A 시장에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들이 가세하고, 일본도 동참할 가능성이 커서 M&A 경쟁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 중국은 지난해 10월 외환보유고 1조 달러를 돌파함. 이 규모는 적정 외환보유고(통상적 3개월 수입규모(1,650억 달러) + 단기외채(1,561억 달러))수준의 3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를 바탕으로 해외 고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M&A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큼. 특히 일본과 한국 기업이 주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큼
- 한편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도 자원과 에너지를 통해 획득한 자본을

활용하여 세계 M&A 시장의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일본도 그 동안의 방어적 M&A에서 벗어나, 공격적 M&A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큼. 특히 자국으로 환류된 엔-캐리 자금과 경기 회복에 따른 풍부한 캐시 플로를 활용해 아시아의 맹주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세계 철강산업의 M&A 신흥세력과 전략>



□ 2007년 철강산업 M&A 시장의 예상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1)그 동안의 소수 대형 철강회사 주도의 M&A에 Tata Steel, CSN 등 중간규모의 철강회사가 가세함으로써 M&A가 더욱 확산될 공산이 크고, 2)방어적인 철강회사들도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 형태의 M&A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3)원료회사가 철강회사를 인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M&A(이업종간 M&A)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같이 철강산업의 M&A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인수비용 과다에 따른 M&A 리스크 경계 필요성도 본격 제기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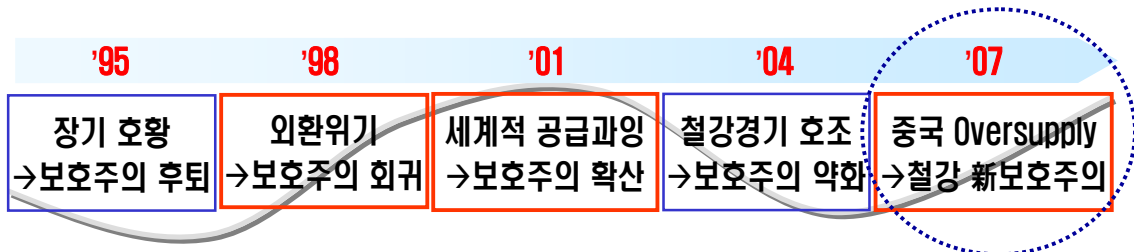
3. 중국발 철강 통상마찰 격화

- 중국의 철강 수출 공세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 2006년 중국의 철강재 순수출은 반제품을 포함하여 약 3,000만 톤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됨. 금년에는 중국 정부의 수출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증설 설비의 본격 가동 등으로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이 같은 중국의 초과공급으로 세계 철강산업은 새로운 보호주의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됨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걸쳐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보호주의가 강화된 이후, 지난 수년간은 철강경기 호조로 보호주의가 다소 약화 되었으나, 금년에는 각국의 對中 철강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마찰의 재연이 우려됨
- 이미 미국은 중국 정부의 철강보조금에 대해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고, 일본은 수입모니터링제의 도입체제를 정비했으며, 동남아 각국들도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규제조치를 검토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중국의 미국 및 EU向 수출 축소시, 아시아 지역으로의 유입물량 증대와 중국 내 유통물량으로의 전환 경로를 거치면서 아시아 역내 국가 간 무역제소가 확산되고,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철강 시황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다만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이 작동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시황이 급락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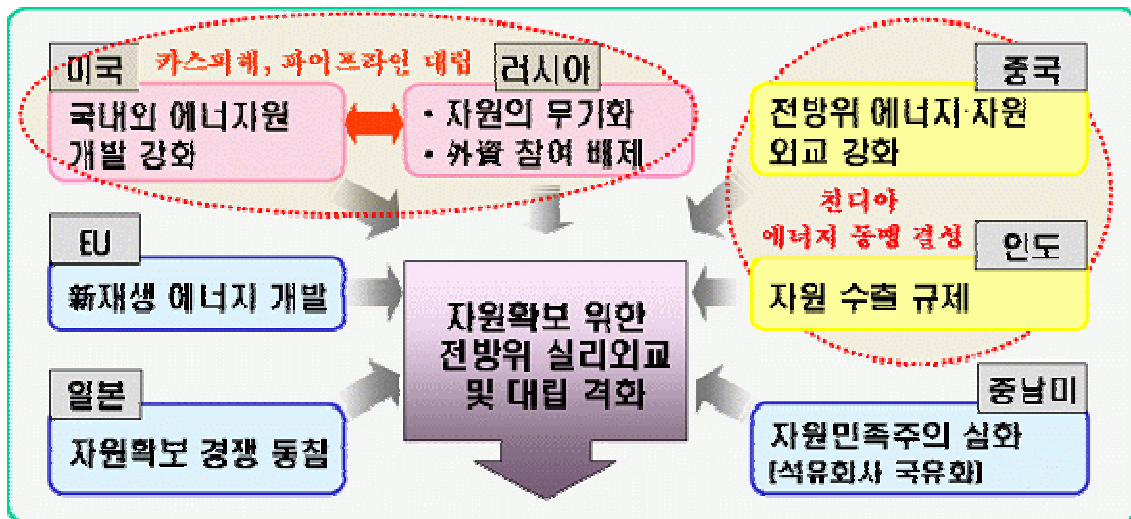
4. 원료 확보경쟁 심화

□ 자원/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자원 보유국들의 민

족주의와 패권주의 확산에 따라 각국들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원료 확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원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과 자원 무기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는 새로운 에너지 격전지의 하나인 카스피해에서 파이프라인 건설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음
- EU와 일본 등 선진국들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함께 자원 확보 경쟁에 동참하고 있고, 중국은 전방위 자원/에너지 외교를 강화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자원/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각국의 전방위 실리 외교는 한층 강화되고, 이 과정에서 대립도 격화될 전망이다

<자원/에너지를 둘러싼 대립과 협력 구도>



- 한편 철강산업에 있어서도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자원 보호주의 경향과 무기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철강원료 보유국들은 자국의 철강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부 차원에서 원료 수출을 억제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전면적인 수출 금지도 고려하고 있음. 예컨대 중국의 경우 철광석과 선철 등 철강원재료를 가공무역 수출 금지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인도도 고품위 철광석의 수

출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원료를 수출하는 대가로 자국 내 대규모 철강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를 요청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원료의 수입과 연계시키고 있음

<자원 보유국의 철강원료 무기화 사례>

중국	• 철광석, 선철, 고철 등 철강원재료를 가공무역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05.5) ※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경우 부가세 환급, 관세면제 등의 혜택 부여
브라질	• CVRD, 철광석 능력 증강 프로젝트에만 지분을 참여하려는 외국기업과의 합작은 원칙적으로 배제 방침 - 철광석 공급업자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철광석 공급대가로 브라질 내 제철소 합작 프로젝트에 외국의 투자 유치 목적
인도	• 국영기업 NMDC의 고품질 철광석 수출 중단 (06.3) - 韓, 日 등과 장기공급계약 갱신 시, 철광석 수출 물량 우선 감축 계획 • 철광석 수출을 원료탄 수입과 해외투자 유치 등과 연계
뉴칼레도니아	• Goro Nickel 프로젝트, 현지 주면 등 반대파의 반발로 건설공사 중단 (06.4) - 지분: Inco 60%, 스미토모광산 11%, 미츠이광산 10% - Nickel 6만 톤, 코발트 5천 톤, 당초 '07년 가을 생산 예정

□ 이에 따라 일본 등 원료 수입국들의 자원 확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가능성이 큼

- 신일철은 지난해 말, 세계 최대 철광석 공급회사인 CVRD와 신규 개발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 원료의 장기안정공급 및 저가원료 사용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등 중장기적 차원의 원료 안정 확보를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III. 국내 철강산업 주요 이슈

1. 철강수요 성장세 둔화

□ 2007년 국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국내 철강 수요산업의 생산 활동은 전년 대비 부진할 전망이다

- 2007년 국내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데다가 대내외 여건 또한 악화되고 있어, 성장률은 4%대 초반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 산업별로 보면, 조선의 경우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나 건조량 증가세는 지난해에 비해 둔화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도 노사분규로 차질을 빚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지겠으나 생산 증가율이 3%대에 그치고, 가전 생산량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2007년의 철강재 내수 증가율 둔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금년 철강재 내수 증가율은 작년의 4.5%에 비해 상당 폭 둔화된 3.1%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2007년 국내 철강 명목소비 전망>

(단위: 천 톤)

구분	2007. 상반기		2007. 하반기		2007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철강재 계	24,915	2.9%	25,851	3.3%	50,766	3.1%
봉형강류	11,001	3.1%	10,820	2.7%	21,822	2.9%
판재류	11,608	2.6%	12,702	3.1%	24,311	2.9%

□ 한편 2007년에는 각종 경제 리스크가 산재해 있어, 이들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 철강 내수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음

- 부동산 불안, 대선, 북핵, 노사분규, 환율 불안 등 5대 리스크 요인이 잠복해 있어, 이들 리스크 중 상당수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 불안이 가중되어 결국 철강 내수기반이 보다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국내 철강시장의 경쟁구조 다원화

- 올해에는 국내 철강시장을 둘러싼 국내외 철강사 간의 경쟁구조 다원화 추세가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 2007년 국내 철강시장은 내수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철강사 간 경쟁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열연 부문에서 현대제철의 생산량 확대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간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냉연류 시장에서도 초과공급 상황이 심화되는 데다가 수출 확대의 한계로 경쟁이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 또한 올해에는 수입 철강재의 국내시장 침투도 지속될 전망이며 수입 철강재와의 경쟁 또한 심화될 것이며, 특히 국내 철강사들은 중국산 수입 철강재와의 힘겨운 경쟁을 계속해야 하는 어려운 한 해를 맞게 될 것임
 - 이는 지난 해 천만 톤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량이 올해에는 1,100만 톤~1,200만 톤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 품목도 저급재에 그치지 않고 점차 중급재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그리고 국내 철강사와의 제휴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본 고로사들의 국내 고급강 시장 침투도 지속될 것임
- 결국, 2007년에는 제한된 국내 시장을 둘러싸고 국내외 철강사 간의 고객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 따라서 각 철강사들의 원가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품질과 서비스 측면에서의 차별적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박현성 (Tel 03-3457-8082, e-mail: hypark@posri.re.kr)

탁승문 (Tel 02-3457-8227, e-mail: smtak@posri.re.kr)